

# 제주도 방언 '나다', '지다'에 대하여

고 창 근\*

## 目 次

1. 서 론
2. 제주도 방언 '나다'의 어휘적 특성과 문법화 과정
3. 제주도 방언 '지다'의 어휘적 특성과 문법화 과정
4. 결 론

## 1. 서론

본고는 제주도 방언의 보조용언 중에서 보조동사 '나다'와 '지다'의 어휘적 특성과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중세국어, 현대국어 공통어와 대비시키면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용언은 최현배(1929/1989)에서 허용(1983)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 목록 등이 검토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보조 용언 범주 설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그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정리 평가된 바 있다.

권재일(1985:17)은 전통적으로 기술해 온 보조용언과 '이다'를 함께 묶어, 서술 기능 수행의 관점에서 이를 의존용언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sup>

\* 제주대 박사과정

1)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p.17.

문장 성분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서술어인데, 서술어는 용언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이 용언이 서술기능을 수행할 때 자립성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른바 보조용언-류와 지정사 '이다'를 문법적으로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은 서술기능 수행의 의존성이라는 동일한 문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김지홍(1982)은 보조동사의 앞에만 나타나는 어미 '-아/어'를 **含蓄 動詞 語尾**라 하고, 보조동사는 언제나 **含蓄文(entailment)**을 갖기 때문에 **含蓄 動詞**라 하였다.<sup>2)</sup>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Jerzy Kurytowicz 1975[1965]:52)<sup>3)</sup>

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로, 강영봉(1981)<sup>4)</sup>, 강정희(1982)<sup>5)</sup>가 있다.

방언의 보조용언 중에서 '나다', '지다'는 각각 공통어와는 특이하게 다른 경로를 따라 문법화하고 있어, 그 문법화의 단계를 파악해 본다면 현대국어 속의 방언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 2. 제주도 방언 '나다'의 어휘적 특성과 문법화 과정

중세국어 동사 '나다'는 '사물이 생기어 이루어지다, 나오다, 생산되다' 등의 뜻을 갖는다.

### (1) 나다 혹은 마른 사르나다 혹은 마리 아니라 <석보상절 6-36>

소리 나거늘 <두시언해 初 8-59>

나거사 즈므니이다 <용비어천가 67장>

人間애 나고도 마리어나 약대어나 <석보상절 9-15>

몸에 물이 :나· 더 <월인천강지곡 185>

밭 타 나커든(關出米來) <박통사언해 초상 11>

地獄애 드러 낱 그지 업스니 <석보상절 9-36>

나디 바티서 남과 7툼썩 <석보상절 6-19>

2) 김지홍(1982), "제주도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p.42.  
이 **含蓄 動詞**들은 모두 짝을 짓고 있다.

가다:오다, 두다:놓다, 앓다(갓다):불다(버리다), 오르다:내리다, 드라(달라):주라, 나다:들다, 먹다:내다, 사다(서다):아지다(앉다), 보다(能動):지다(受動)

3)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p.23에서 재인용.

4) 강영봉(1981), "제주도 방언의 후치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강정희(1982), "제주 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11.

중세국어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제주방언의 「-안디, -아피, -신디」류에 대해서 기술함으로써 실사 단계에서 허사 단계로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 있다.

## 제주도 방언 '나다', '지다'에 대하여

현대국어 '나다'의 쓰임과 의미도 중세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나오다'의 뜻으로는 그 용례가 많지 않다.<sup>6)</sup>

(2) 인삼은 강화에서 난다.

불이 나다

소리가 나다

드는 줄은 몰라도 나는 줄은 안다.

\*물이 난다.

그러나 방언의 '나다'는 '나오다'의 뜻으로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3) 물에서 나다. (↔물에 들다)

잠녀덜 다 나신가? (해녀들 바다에서 다 나왔는가?)

중세국어 '나다'는 보조용언으로 쓰여 '어떤 상태에서 탈피함', '돌보임'의 뜻을 나타냈다.

(4) 다른 나라히 와 보차거나 도즈기 곶외어나 호야도 더 如來를 念호야 恭敬호

스불면 다 버서 나리 <석보상절 9-24·5>

빠혀 나기 호쇼서 <월인석보 8-59>

현대 국어 '나다'는 본용언 외에 다음과 같은 보조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5) ㄱ. 꽃이 활짝 피어 난다.(ampliative graduality marker : 점진적 확산표지)

ㄴ. 울고 나니 시원하다.(completive aspect marker : 완결의 상표지)<sup>7)</sup>

---

6) 다음은 김광해(1993)의 유의어·반의어 사전 뜻풀이이다.

- ① 이루어지다, 발생하다 (병이, 불이)
- ② 일다, 드러나다 (시골터가)
- ③ 나오다, 흘러나오다 (눈물이)
- ④ 나타나다, 등장하다
- ⑤ 생산되다, 산출되다 (햄뿔이)
- ⑥ 실리다, 게재되다 (신문에)
- ⑦ 태어나다, 출생하다
- ⑧ 나이 먹다, 나이 들다 (다섯 살 난 아이)

예문 (5기)은 '자라나다', '놀아나다' 등의 경우와 같이 아직도 연속동사구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어 나다'가 점진적이고 확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파생형태소로 문법화되었다.<sup>8)</sup>

예문 (5ㄴ)의 경우 비종결표지인 '-고'와 결합하여 일종의 연계동사구문으로 사용되다가 '-고 나다'는 완결의 의미를 가지는 상표지로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문법표지들은 하나의 사건 도식의 구조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이 놓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문법표지로 발달하고 있는데, '나다'는 출발점으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냄으로써 종결성동사(telic verb)가 되고, 바로 이 종결부분에 초점이 놓이게 되어 완결표지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sup>9)</sup>

(6)의 보조 동사 '나다'는 종결법의 실현에서 모두가 제약적이다. 이 구문은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7)과 같이 접속문 구성의 선행절로만 실현될 수 있다.

접속어미 '-으니', '-으니까', '-어(서)', '-면' 등과 결합하며, 관형형어미 '-ㄴ'과 결합한다. 관형형어미 '-르'과는 결합에 제약이 있는데, '나다'의 [완결] 표지가 '-르'의 [미완료] 표지와 충돌하여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내가 밥을 먹고 났다.

\*내가 밥을 먹고 났나?

\*밥을 먹고 나라.

\*밥을 먹고 나자.

(7) 한참 걷고 나니까, 다리가 아프다.

목욕을 하고 나니, 기분이 상쾌하다.

조금 걷고 나면, 몸이 풀릴 것이다.

많이 생각하고 나서 말해라.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 세수했다.

\*아침밥을 먹고 날 것이다.

7) 이성하(1998), 앞의 책, p.151 참조

8) '-아/어 나다'의 확산적 의미는 '-아/어 들다'와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피어나다 돌아나다, 벗어나다, 불어나다, 솟어나다, 늘어나다  
 (↔찾아들다, 줄어들다, 기어들다, 모여들다, 굽어들다)

9) 이성하(1998), 앞의 책, p.152 참조

## 제주도 방언 '나다', '지다'에 대하여

공통어에서 '-아/어 나다'계 구성은 '-고 나다'와 달리 보조동사구문으로 보지 않고 복합동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방언의 '나다'는 동사 어미 '-아/어' 아래서 보조동사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본용언과 '나다'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 가능하며 평서, 의문, 청유, 명령 등 모든 종결법에 제약이 없다. (8)과 같은 발화는 공통어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8) ㄱ. 먹어도 난다?

ㄴ. 문여 먹어 나시라. (명령)

먹어 난다? (의문)

먹어 나쨌. (평서)

먹어 나게. (청유)

하도 하영 먹어 나난, 이젠 실프다. (접속)

먹어 나민, 그릇 설르라. (접속)

(9)에서는 일부 형태소들과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어 나다'가 갖고 있는 [완결] 표지와 '-암시/엄시-'가 갖고 있는 [미완료] 표지가 충돌하여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먹어 남시나?

\*먹어 남쨌

방언에서는 '형용사+나다' 구문이 가능하다. 물론 본용언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령, 청유 등의 종결법에 제약이 있다.

(10) ㄱ. 잘도 고와 낮저.(매우 예뻐었다.)

ㄴ. \*죽아 나라.

공통어에서의 완결표지는 방언에서 경험표지로 발전하고 있다. 즉, (10 ㄱ)과 (11)의 '나다'는 발화시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거나 상태, 현재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인 경우, 과거와의 단절을 선명히 하는 기능을 한다.

이 [경험]표지는 하나의 [경험상] 표지 굴절 형태소 '-나-'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sup>10)</sup>

(11) 하영 아파 나신가?(많이 아팠었는가?)

작년 7정은 흑생이라 나신디,(작년까지는 학생이었는데)

먹어 나신가?(먹었었던가?)

이상에서 방언 '나다'는 '만들어져 나옴→어떤 상태에서 탈피함'의 용언에서 '완결 표지→경험상표지'로의 문법화 단계의 충위를 이루면서 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3. 제주도 방언 '지다'의 어휘적 특성과 문법화 과정

다음은 현대국어 동사 '지다'(落)의 사전 풀이이다.

(12) (자동사) 지다 : 그들이 생기다, 물이 닳게 되다.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

꽃이나 잎이 시들어 떨어지다.

(조동사) 지다 : 사물이 어떻게 되어감을 나타내는 말

(타동사) 지우다 : 끊어지거나 떨어져서 제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다.

예) 아이를 지우다.

방언에 다음과 같은 발화가 보이는데 모두 자동사로 쓰인 예이다.

(13) 먹을 혼이 저서. (먹어야 할 시간이 다되어 이미 지났어.)

애기 져벳주. (아기 유산되었어.)

다음은 '되다, 생기다'의 뜻의 접미사처럼 사용된 예로서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를 주어로 하고 있다. 주격조사가 붙기도 하는데, 붙지 않을 때 '지다'는 접미사처

10) 과생형태소는 더 어휘적이고 굴절형태소는 더 문법적이므로 일반적으로 굴절형태소가 과생 형태소보다 더 문법화된 것이라 하겠다.

## 제주도 방언 '나다', '지다'에 대하여

럼 보인다.

- (14) 그늘 지다
- 얼룩 지다
- 흙 지다
- 명 지다
- 장마 지다
- 원수 지다

'-어뜨리다'와 짝을 이룰 수 있는 '-어지다'계 복합동사들도 대부분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영진(1995: 50-52)에 제시된 200여 개 어휘 대부분이 그러하다. 이 사실은 본동사 '지다'의 본래적 의미를 알게 해 주는 근거가 된다.

중세어 '디다'는 유사성에서 전이되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① 떨어지다

두 늣물 디샤 <월인천강지곡 45>

金 고지 짜해 디거늘 <석보상절 24-19>

### ② 넘어지다, 쓰러지다

寶冠이 오나날 아바님 보시고 짜해 디여 우르시니 <월인천강지곡 57>

### ③ 내리다

버듯 고지 눈 디듯하야(楊花雪落) <두시언해 초 11-18>

### ④ 떨어뜨리다

그술 뜰헤는 브르미 果實을 디오(秋庭風落果) <두시언해 초 15-14>

### ⑤ (해·달)이 지다

별와 銀河는 새벧 외호로 디눣다(星河落日曉山) <두시언해 초 11-50>

三年을 디는 희 늣죽호도다. <두시언해 초 7-16>

또 위의 의미 이외에도 抽象化로 '값이 싸다', '덜하다·못하다', '滿落되다', '沒頭하다'의 뜻으로도 쓰여 現語 '지다'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sup>11)</sup>

11) 김태근(1989), "중세 국어의 다의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8.

다음은 앞의 예에서 의미 전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중세국어 '-아/어 디다'의 예이다. (15 ㄱ, ㄴ)은 '떨어지다, 쓰러지다'의 의미로, (15 ㄷ, ㄹ)은 '-이 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 (15) ㄱ. 消는 스러덜씨라 <월인석보 서-25>
- ㄴ. 모던 길혜 아니 떠러디게 호리라 <석보상절 9-6>
- ㄷ. 온 가짓 중식이 머리엿 骨髓 떠디여 <월인석보 2-38>
- ㄹ. ㅈ는 즐어덜씨라 <월인석보 서 : 14>

현대국어의 '-아/어 지다'는 타동사는 물론, 자동사와 형용사에 두루 붙을 수 있지만 중세국어의 '-아/어 디다'는 그 쓰임이 극히 제한되어 타동사에만 결합하고 있었다.<sup>12)</sup>

- (16) ㄱ. 발로 靑山을 드되니 즘은 먼더 다 글회여 디거늘 (풀어 지다)<월인석보 23-79>
- ㄴ. 프른 거시 드러시니 브르매 竹筍이 것거 멧고 (꺾어 지다)<두시연해 15-8>
- ㄷ. 드트리 드외익 붓아 디거늘 (부서 지다)<석보상절 6-31>

다음은 현대국어에서 '되다, 생기다, 이루어지다'는 뜻의 조동사로 사용되는 예이다.

- (17) ㄱ. 훨신 고와 졌다.
- ㄴ. 죽은 먹어 진다.
- ㄷ. 한 손으로 잡아 진다.

위의 예들은 모두 [행위의 실현](형용사의 경우 상태의 실현)으로, 본동사와 같이 '-이 되다'의 의미를 갖는다.

피동적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은 '-아/어 지다' 구문의 의미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자동적 과정'이라는 의미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외부에서 힘이냐 영향을 가하여 종결되는 것으로 해석될 때 '-아/어 지다'의 구문이 피동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지다'에는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상태가 변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12) 고영근(1990),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p.217.



## 제주도 방언 '나다', '지다'에 대하여

김지홍(1993)은 '지다'의 어휘의미로 [+자동적 과정성]의 자질을 상정하였으며, 임흥빈(1985)의 입장에서 '-아/어 지다' 구문이 피동문을 구성하기 위한 필연적 통사기제가 아님을 밝히고, 피동의 해석이 유도되기 위한 부대조건들로 세 가지 조건을 상정하고 있다.<sup>13)</sup>

(18) ㄱ.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껴 졌다.

ㄴ. 나무가 폭풍에 쓰러 졌다.

ㄷ.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 졌다.

위의 예문 (18)을 자세히 살펴 보면, 지금까지 이른바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보아 온 '지다'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는 '보아지다'의 '지다'와 같이 완전한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둘째로는, '쓰러지다'의 '지다'처럼, 피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그것의 본용언이라고 할 만한 어형이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어형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던 뜻과는 상당히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쓰인 '-지다'는 보조용언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접미사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sup>14)</sup> 그리고 셋째로는, '부러지다'의 '지다'와 같이, 완전히 접미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18)에서 보는 것 같은 용언에 쓰이는 '지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문법화 과정에 있는

13) 김지홍(1993), "국어 부사형 어미 구문과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87-195.

첫째, 의미역 배당이 제 1지정어와 제2지정어에 <목표역>과 <경험주역>이 배당되어야 한다. 둘째, [+주연 전체지시]를 기능자질로 갖는 기능 형태소 -아/어에 의해 내포문이 이끌어짐으로써, 내포문의 명제사건이 전체로 자동적인 변화를 겪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이 변화 과정이 외부의 어떤 힘이나 영향(교사자나 사역자)에 의해 진행된다고 파악되어야 한다.

14) 고영진(1995), "국어 풀이씨의 문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p.48 참조

'쓰러지다'의 밑줄 친 부분은 『掃』라는 뜻을 가진 '쓸다'에서 온 것임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쓸다'는 '-어지다'와 연결이 되면서 이른바 연철이 된 '쓰러지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쓸다'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개별적인 낱말로 인정을 받아 사전에도 실려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쓰러지다'의 밑줄 친 부분은 그 원래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掃』의 뜻을 가진 '쓸다'와는 공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쓰러지다'로 적으면서 사전에도 올리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쓰러지다'는 '쓸다+지다'의 분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지다'는 접미사에 가까워진 형태로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아/어 지다’는 방언에서 [능력]의 상표지를 갖는다. ‘원하지 않은 일이 그렇게 ‘되다.’는 의미에서 ‘원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능력’의 의미로 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9) ㄱ. 정을 꿔다
- ㄴ. 정이 꿔어 지다
- ㄷ. 정을 꿔어 지크냐?

(19 ㄴ)의 경우 공통어와 방언에서 다 가능한 발화이다. (19 ㄷ)의 경우 방언에서는 빈번한 발화이지만 공통어에서는 목적어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sup>16)</sup>

- (20) ㄱ. 나도 먹어 겨라.
- ㄴ. 나도 먹어 지메.
- ㄷ. 나도 먹어 점져.

(20 ㄱ)은 지난 일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더라’는 의미를, (20 ㄴ)은 미래에 ‘나도 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20 ㄷ)은 현재 ‘먹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각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방언의 ‘지다’는 다음과 같은 문법화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하강 : 신의 하강, 신의 은총이 내림, 명령이 내려옴,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음 : 디다  
 (원하지 않는 일이) 그렇게 됨 : 떨어지다, 자빠지다, 부러지다, 무너지다, 부서지  
 다, 쏟아지다, 벗어지다, 헤어지다, 터지다, 찢어  
 지다, 쓰러지다, 갈라지다

15) 위의 책, p.49.

16) 현평효(1976:60)에서 “그건 나도 헤지키여.”를 예로 들고 ‘가능’을 지시하는 형태소는 ‘-크.’이라 기술하고 있는데, ‘지다’의 기능을 무시해버린 해석으로 보인다. ‘할 수 있음(가능성)’의 의미는 ‘지’에 있고, ‘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의 의미가 ‘-크.’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제주도 방언 '나다', '지다'에 대하여

이루어짐 : 고와지다, 잡아지다, 먹어지다

능력(가능성) : 나도 지냉이 먹어지메.

### 4. 결론

이상에서 제주도 방언 보조용언 '나다'와 '지다'의 어휘적 특성과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보조용언 '나다'는, 공통어에서는 '-고 나다'의 형태를 취하고 모든 종결법의 제약이 있는 반면 방언에서는 '-아/어 나다'의 형태로 종결법의 제약이 없다.

방언 '나다'는 '만들어져 나옴→어떤 상태에서 탈피함'의 용언에서 '완결표지→경험상표지'로 문법화 단계의 충위를 이루면서 분화하고 있다.

보조용언 '지다'는 본용언 '지다'가 본래 부정적 의미를 가짐으로 인하여 대부분 부정적 의미를 가진 본용언을 취했었다. 그러나 차츰 긍정적 의미의 본용언을 취하면서 '이루어짐'의 의미를 가지고, 특히 방언에서는 [능력(가능성)]의 지표로 가지게 되었다.

방언의 '지다'는 '하강→원치 않는 일이 그렇게 됨→이루어짐'을 뜻하는 용언에서 '능력(가능성)상표지'로 문법화 단계의 충위를 이루면서 분화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영봉(1981), "제주도 방언의 후치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희(1978), "제주 방언 접속문의 시제에 관한 일고", (서울대) 『어학연구』 14-2.
- 강정희(1982), "제주 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11.
- 고영근·남기심(1986),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근(1990),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진(1995), "국어 풀이씨의 문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김승곤(1977), “연결어미 「고」에 대하여”, (건국대) 『학술지』 21.
- 김승곤(1978), “상태 지속의 연결어미 「아」에 대하여”, 『눈외 허응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한글학회.
- 김지홍(1982), “제주도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홍(1992), “(-겠-)에 대응하는(-(-으)크-)에 대하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 김지홍(1993), “국어 부사형 어미 구문과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 총서』 21, 국어학회.
- 김태곤(1989), “중세국어의 다의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수(1977), “계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 5.
- 남광우(1982), 『고어사전』, 일조각.
- 문순덕(1999),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호민(1973), “Coherence in Korean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서울대) 『어학연구』 9-2.
- 손호민(1976), “Semantics of Compound Verbs in Korean”, 『언어』 1-1, 한국 언어학회.
- 송상조(1990),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동휘(1979), “국어의 피. 사동” 『한글』 제166호, 한글학회.
- 안병희·이광호(1996),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기갑(1981), “씨끝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서울대) 『어학연구』 17-2.
- 이기동(1976), “조동사의 의미분석”, 『문법연구』 제3집.
- 이기동(1978), “조동사 「지다」의 의미 연구”, 『한글』 제161호.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승녕(1957),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연세대) 『동방학지』 3.
- 이승녕(1961, 개정 198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양혜(2000), 『국어의 파생접사화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이정민(1975), “국어의 보문화에 대하여”, (서울대) 『어학연구』 11-2.

제주도 방언 '나다', '지다'에 대하여

- 장석진(1973), “시상의 양상”, (서울대) 『어학연구』 9-2.
- 정승철(1994), “제주방언의 통시 음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29, 열다섯 번째 고침 198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허 응(1975/1988),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1976),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아세아문화사.
- 현평효(1979), “제주도 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언』 2.
- 현평효·김홍식·강근보(1974) “제주도 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6.
- 홍종림(1976),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김형규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